

유전자재조합식품(GMO)에 대한 소비자 정보요구도 연구

박 혜 영*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박사과정)

김 시 월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대량의 농수산물이 각국에서 수입되어 식품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많은 양의 농산물을 유전자재조합농작물의 재배가 많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노출되어 있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얻기 원하는 정보요구도를 파악하여 관련요인을 밝혀 그 결과를 토대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소비자교육에 필요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성인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기 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500부를 배포·수집하여 이 중 부실 기재된 37부를 제외한 설문지 46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Program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소비자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므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국가정부단체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의한 안전성 시험결과 발표와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지식 수준이 8점 만점에 1.68점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러한 상태에서의 소비자교육은 매우 기초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과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식생활과 식품 관련 활동이 많은 여성과 주부들이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보요구도가 높았으므로 여성들에 대한 정보제공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의 포함여부 확인이 어려운 패스트푸드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식품 구매 시 합리적 소비자 판단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시에 있어서 세부사항의 규정과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규정과 조치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의 진행사항을 증진시키리라 여겨진다.

여섯째,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업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